

# 原子力開發의 正確한 實狀을 公開

서 무 교

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본부 홍보관리과장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국 지도 벌써 14년여가 되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이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민주화와 자유화의 물결과 더불어 지구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반핵 또는 반원전인사 및 환경보호주의자들에 의한 반원전활동이 강화되어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표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사회적 지지기반 확충과 원활한 전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격적인 원전 PA 활동이 시작되었다. 원전 PA 활동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시행방법상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고리원자력본부에

서 시행중인 원전 PA 활동을 단편적으로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 古里原電 周邊地域의 環境과 特性

### 1.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주지의 사실이지만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로서 국내 원자력발전의 요람이다. 일반국민들에게는 원자력이라는 낱말이 생소한 시기인 1970년에 원자력 기술입국과 에너지자원 다변화 등의 기치 아래 건설이 시작된 고리원자력은 16년 동안에 걸쳐 4개 호기에 총설비용량이 313만 7천kW에 달하는 대규모 원자력발전단지로서 성장하였으며 한때는 국내 전체전력수요의 3분의 1을 이곳에서 담당하기도 하였다. 값싸고

깨끗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내 산업발전의 공헌과 에너지난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와 함께 원자력관련 산업발전과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 2. 傳統적인 農漁村地域

고리원자력 주변지역은 전통적인 농어촌지역으로 지역주민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리원자력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길천, 월내마을 등에는 5일장을 비롯한 상권이 일부 형성되어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도 다소 있다. 이와 같이 생활근거를 대부분 농업과 어업에 두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영농이나 영어규모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리원자력의 건설기간중에는 건설현장 종사와 건설인력을 상대로 한 활발한 상업활동으로 지역주민과 고리원자력과는 별다른 이해상충 없이 지내왔으나 건설종료 이후 건설인력 철수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사정이 급격히 위축되고, 또한 뒤에서 다시 언급 되겠지만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원인이 전적으로 고리원전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자연히 고리원전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 3. 開發制限區域과 地域發展落後

고리원자력 주변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는 바로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이 지역이 부산, 울산 등 대도시의 중간위치에 해안경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정한 것이지만 고리원전 주변지역주민들은 .이로 인하여 지역개발 낙후, 주거환경 열악, 생활기반시설 미비와 함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고리원전에서도 주민들의 민원해소 측면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고리원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92년 5월에 인근지역 중 길천, 효암 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로 지정되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 4. 地方自治와 住民意識水準 向上에 따른 欲求增大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지방의회 구성) 실시와 함께 주민 의식수준 향상으로 지역이기주의 팽배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 최대규모의 고리원자력에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여 줄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리원자력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욕구수준에 부응하여 지난 90년도



〈그림 1〉 월내장터에서의 원자력홍보 및 절전운동 계몽활동 모습

부터 고리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규모(연간 10억원)가 주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법 시행령이 개정(92년 10월 19일 공포)됨으로써 93년도부터는 지원사업규모가 대폭 증대(연간 10억원에서 19억원으로)되어 지역주민들의 기대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原電 PA 活動

고리원자력본부에서는 원자력 PA 활동의 목적을 지역주민들에게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이해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고리원전 주변지역주민을 원전 지지계층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여타 지역으로까지 친원전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 아래 인근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 언론매체, 내방인사를 대상으로 한 원전 홍보활동과 인근지역 학생들에 대한 원전 홍보강의 실시 등 특별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1. 住民弘報活動

원전 PA 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주민홍보에 두고 있는 고리원자력은 인근지역주민들에 대한 원전 홍보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에게 원자력발전소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고리원전 인근 32개 자연부락 단위별로 부락주민을 발전소로 초청하여 전시관, 중앙제어실, 터빈 및 발전시설 등과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등을 견학시킴으로써 바깥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던 원자력발전소의 실체를 현장확인을 통하여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를 이해하고 친원전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여름철 농한기에는 인근마을을 순회하면서 방문하여 원자력 홍보영화 상영과 원전 홍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운영상황과 인근 마을소식 등을 게재한 「고리원자력 마을소식」지(10월 8면)를 매월 8천부씩 발간하여 원전 반경 5km 이내의 전 주민에게 배포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소식지 지면에 지역주민들의 원고게재와 배포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하여 원전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인 전통민속 5일장이 개설되는 월내장(2일, 7일)과 파천장(4일, 9일)날에 10여명의 직원들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바로 알기 운동과 절전운동 계몽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체육행사와 인근지역 학교의 운동회 및 학예회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전 홍보자료와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친원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을 노인정의 주기적 방문과 불우주민에 대한 인보활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형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원전 PA 활동은 PA 전담부서에만 시행한다는 생각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일반직원들로 하여금 PA 활동에의 참여유도와 전직원의 홍보요원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고리원자력본부 소속 전 부서를 인근 32개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어 마을별 각종 행사참여와 함께 경조사 발생시에도 위로방문토록 하여 지역주민과의 실질적인 융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길천, 효암, 월내, 비학, 임장리 등 인근 5개 부락의 여론주도인사 7명을 원자력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홍보활동에 대한 방향설정과 홍보기법 개발 및 홍보효과 분석 등에 자문을 구함으로써 주민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홍보가 정착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 2. 有關機關 및 團體에 대한 原電 PA

지역사회의 바닥여론을 대상으로 한 원전 PA 활동이 주민홍보라면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원전홍보는 지역사회의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활동의 하나이며 이는 유관기관 및 단체장들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실질적으로 지역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주민홍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비중이 높은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은 주로 고리원자력본부의 고위간부가 직접 나서서 원전 PA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즉 양산군 단위기관 단체장과 장안읍, 일평면, 서생면 등 읍면 단위기관 단체장들을 군 및 읍면 단위별로 각각 연 1회 이상 발전소로 초청하여 발전소 현장시찰과 함께 전력산업동향 및 원자력발전소 운영실태 등에 관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전

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단체 소속원들에게까지 원전 지지기반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서의 친원전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군 단위 및 읍면 단위기관 단체장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원자력발전소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설명과 홍보자료 제공 등으로 원전 PA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와 때를 맞추어 양산군 및 울산군 소속 기초의회의원(각각 14명)과 의회 관계공무원들을 발전소로 초청하여 원자력홍보활동을 펼침으로써 지방의회의원들로 하여금 원자력발전사업에 관한 안목을 넓히고 원전을 바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조직인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회원들을 발전소로 초청하거나 또는 자체 행사에 참석하여 원자력홍보관련 각종 자료제공과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경제성,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하여 원전 PA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유관기관 및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자생조직의 임원진에 대해서는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고리원자력 마을소식」지를 포함한 원전관련 각종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짐과 동시에 홍보활동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유관기관 및 단체와 지역사회의 자생조직이 원전 지지계층화되도록 유도하고 있

다.

### 3. 來訪人士 弘報活動

주민과 유관기관 및 단체장에 대한 원전 PA 활동과 함께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는 인사(초청방문 또는 일반방문)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본부의 경우 지난 78년도에 원자력전시관을 개관한 이후 92년 12월말까지 80만6천여명에 달하는 국내외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방문하여 전시관을 비롯한 발전소 주요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방문인사들이 원자력발전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고리원자력본부는 교통이 편리하고 부산, 울산, 경주 등 국내의 주요 관광명소와 국가 주요 산업시설이 이웃하고 있어 비중있는 해외인사와 귀빈급 국내인사가 다수 방문함으로써 방문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원전 PA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내방인사에 대한 원자력홍보활동의 요체는 내방인사들에게 원자력발전소 현황과 운영실태 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들에게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생생한 원전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이나 불신감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한 건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원전 지지계층화하는 데 있다.

내방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원전 PA 활동은 먼저 내방인사들을 주요인사, 대학교수 및 교사, 언론인, 전국 각 지역의 여론주도인사, 대

학생, 인근지역주민, 초, 중, 고교생과 일반인사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계층에 적합한 현장안내와 설명을 실시하고 아울러 내방인사별로 내방일정과 안내 및 설명에 적절한 규모의 인원을 사전조정함으로써 홍보효과를 제고시키고 있다. 특히 주요인사, 교직원, 언론인, 대학생 등 일반국민들의 여론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현장안내 및 설명과는 별도로 간담회 또는 설명회 시간을 마련하여 보다 깊이있고 폭넓은 원전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초, 중, 고교생들에게는 원전관련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바꾸어 대형 차트를 작성하여 이를 통한 설명을 곁들임으로써 자라나는 세대인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원자력지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인사 중 주요인사에 대해서는 주소를 파악하여 원전 홍보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관심과 지지성향을 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 4. 言論을 통한 PA 活動

원자력 PA 활동 중 언론을 통한 PA 활동의 목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고장정지사례 등을 포함한 발전소 운영상황 중 중요한 사항을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언론기관이 이를 사실대로 보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 즉 일반국민들에게 원전을 올바르게 이해시킴과 동시에 원자력발전의 장점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리원자력본부의 경우에는 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즉 한 주기 무정지 연속운전기록이나 이 용률과 발전실적의 목표치 초과달성 및 원자력전시관의 인근주민 결흔식장 활용과 같은 우수사례와 함께 원자연료교체 및 계획예방정비와 고장정지사례에 대한 내용 등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적기에 배포함으로써 정확하고 사실적인 보도가 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막연한 추측보도나 왜곡보도 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운영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홍보성 기사 게재 등으로 언론에 집중 부각시켜 원전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한편 비판 또는 왜곡기사가 보도될 경우에는 해당기사 분석과 동시에 정확한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언론사와 주재기자를 방문하여 내용설명과 함께 정정기사 게재를 요구함과 동시에 다른 언론사에도 해명자료를 배포하여 비판 및 왜곡기사의 보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고리원전 인근에 주재하는 기자단과 지방언론사 종사자를 발전소로 초청하여 원자력발전현장을 견학시키고 설명회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원전관계자가 주재기자실을 정례적으로 방문하여 원전에 관한 설명기회를 자주 가지므로써 언론기관 종사자들에게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원전과의 유대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직원들도 언론홍보 기회인 일간신문 독자투고란에 원전관련 홍보성 원고를 작성, 투고함으로써 언론을 통



〈그림 2〉 원자력홍보자문위원회에 위촉패를 수여하는 장면

한 원전 PA 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TV 방송과 라디오방송의 지방프로에 본부장과 홍보부장이 직접 출연하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전의 안전성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일반시민들이 원자력발전을 이해하고 원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5. 特別弘報活動

고리원자력본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원전 PA 활동과 함께 원전 PA 활동을 더욱 심화시키고 홍보활동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홍보활동도 아울러 전개하고 있다. 92년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9일간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개최된 92년도 부산과 학축제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환경관리센터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약 30명 규모의 원자력관을 설치하고 원자력관 내에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사례와 원자력발전원리 모형도 및 원자로, 원자연료다발,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모형물 등의 전시와 각종 원전관련 홍보자료를 비치, 운영함으로써 이 기간 중에 이곳을 찾은 일반시민과 학생 등 100여만명에게 원자력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인근지역의 초, 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원자력홍보 특별강의를 시행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원자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주부대학과 노인 대학에도 원자력홍보 강의시간을 별도로 할애받아 주부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강의를 실시하여 원전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리원전 주변지역이 TV 난시청지역으로 주민들이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인근지역 5개 유선방송사에 원

자력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제공하여 적절한 시간대에 이를 방영토록 협조함으로써 원전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수인의 왕래가 잦은 공공장소인 월내 및 과천역 대합실과 읍사무소 민원실 등에 원전홍보물을 상시 비치하여 이곳을 왕래하는 주민이나 일반인들이 손쉽게 원전 관련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민홍보 및 인보활동 측면에서 원자력전시관을 인근지역주민들의 결혼식장으로 제공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결혼식장 무료제공 뿐만 아니라 하객수송용 대형버스와 결혼기념사진(5조 15매) 및 기타 예식관련 소모품 일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곳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에는 마땅한 예식장이 없어 전시관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 되고 있어 92년도에는 81쌍이 이곳을 이용하여 혼례를 치루었으며 해마다 이를 이용하는 주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원자력전시관을 지역주민 결혼식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리원자력본부와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형성과 유대강화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 原電 PA 活動 方向과 課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꾸준하고 활발한 원전 PA 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인근지역사회에서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상당한 정도의 수준까지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원전과 함께 잘 사는 지역사회를 건설해야겠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친원전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원전 주변지역사회를 진정한 원전 지지계층화함과 동시에 친원전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내실있고 가시적인 원전 PA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원전 PA 활동은 한층 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원자력발전소 주변마을을 깨끗하고 살기좋은 마을로 조성하여 원자력전시관을 방문하는 국내외인사와 일반국민들에게 원전주변마을을 원전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원전주변지역이 실제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원전에 대한 지지도 확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공해추방연합 등 반핵 또는 반원전주의자와 환경보호주의자들의 반원전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 완벽하고 확고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홍보전문요원을 육성하여 이들과 수시로 접촉함으로써 이들의 반원전시각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원자력전시관의 견학기회를 대폭 증대시켜 일반국민들 중에서



〈그림 3〉 부산과학축제 원자력관 관람 장면



〈그림 4〉 인근지역 학생에 대한 원자력홍보 특별강연 장면

아직까지 원전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이나 불신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 원전현장을 직접 체험토록 하여 원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홍보, 대도시지역에 원자력문화관 설치 및 운영, 원전 PA 관련 모니터 운영 등 새로운 홍보기법 개발과 함께 원전 PA 활동결과에 대한 효과분석과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등에 활용가

능한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전 PA 활동은 원전 PA 전담부서만의 것이 아닌만큼 원전종사자는 물론 전체 한전인과 관련회사 직원들도 원전에 관한 100%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기회있을 때마다 원전 PA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원전 PA 활동의 효과를 더욱 더 높이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